



본 공연은  
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땡냥의 소리와 몸짓 제비꽃

2013년 6월 15일 오후 6시 40분~오후 7시 40분  
서동 창작아트센터 특설무대

주관 및 주최  민족문화의 희망찬 내일을 여는  
사) **경주문화재단**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

 한국농악보존협회 부산지회  **금정구**  **부산민예총**

협 찬 (주)옥천당, 부산청년한의사회



# 맹남의 소리와 몸짓 파방굿

없던 일은 있던 일로 만들고...  
끝으로 시작을 엮어간다.  
파방(罷榜)의 본래 뜻은  
있었던 일을 다시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다.  
허나 역사는 반복되고  
새것이 현 것을 밀어내는 것이 당연한 일 것이다.  
'내고 달고 맺고 풀고'는  
풍물에서 기본원리처럼 쓰이는 말이지만  
꼭 가락을 중심에 두고서 하는 말은 아니다.  
어찌 보면 그 말은  
놀이판 전체의 구성원리와 흐름, 형식과 내용을  
총체적으로 규정짓는 명제일 수도 있다.  
놀이판의 마지막에  
마당 한가운데 피워놓은 모닥불에  
상모의 끝에 달았던 종이 등을 찢어서 불에 태우며  
그 놀이판을 구경한 사람들과 참여한 사람들의  
그동안의 애환, 갈등과 같은 아픔들을 달래고  
이후에 삶에 대해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놀이판의 장치이자  
큰 한판의 정리였다.

## 주요제작진

대본\_ 정승천 (사단법인 남산놀이마당)  
연출\_ 조대일 (사단법인 남산놀이마당)  
안무\_ 김경철 (한국농악보존협회 부산지회장)  
사진\_ 박정훈  
촬영\_ 이스크라진

## 주요출연진

쇠\_ 장재희 (사단법인 남산놀이마당)  
조대일 (사단법인 남산놀이마당)  
징\_ 김경철 (한국농악보존협회 부산지회장)  
김예빈 (사단법인 남산놀이마당)  
장구\_ 임채련 (사단법인 남산놀이마당)  
설영성 (전.전국무용제사무국장)  
최권집 (전.남산놀이마당)  
북\_ 김두진 (영도문화원사무국장)  
김호진 (북카페사무국장)  
이우창 (공연집단 더)  
소고\_ 방형웅 (사단법인 남산놀이마당)  
한상훈 (사단법인 남산놀이마당)  
김 준 (사단법인 남산놀이마당)  
태령소\_ 박정희 (사단법인 남산놀이마당)  
판소리\_ 양일동 (양일동우리소리연구소 소장)

## 프롤로그(prologue)

별을 품에 안고 굿은 새벽바다로 저문다...

1900년 한 무리의 재인(才人)들이 풍물로 시선을 끌며 마을 어귀로 들어선다. 행색이 남루하여 먼 길을 온게 분명하나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갖가지 기예를 선보이며 신명을 낸다. 주변으로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탈속에 가려진 그들의 흥을 부추기고 던져진 엽전 한뼉에 땅재주를 넘고 자반뒤집기를 해치운다. 허나 점점 날은 저물어가고 장터에는 그들만이 남는다. 그들의 등 뒤로 그들이 어떻게든, 그 무엇으로도 이겨낼 수 없었던 세월의 변화가 밀려오고 있었다.

## 1. 내고

길군악이라는 경상도 특유의 힘이 느껴지는 가락과 그에 맞는 진의 형식을 빌려와 혼합 장단의 맛과 멋을 내용과 형식이 통일되는 판굿의 내달음으로 보여준다. 풍물굿을 제대로 느끼려면 길군악을 알아야한다. 그 가락의 형식은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가락보다 사람의 감정을 이끄는 것이 길군악이다.

## 2. 달고

반길군악가락의 음악적 특징은 가락을 빠르게 몰아가면서도 연주자의 뛰어난 기량으로 새들이 무리를 지어 작은 소리로 빠르게 속삭이듯이, 허나 분명한 소리로 연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속삭이듯 낸출대며 흘러가던 가락은 어느새 빠른 덧배기가락으로 치달으며 연희자와 구경꾼을 혼연일치로 몰아간다.

## 3. 맺고

풍물에서 진풀이는 다만 형식적 미감만을 강조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진을 감고 풀고 맺는가에 따라 사람이 보일수도 악기가 보일수도 혹은 사람이나 악기가 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날 무대화된 풍물의 모습은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무대화된 형식에서만만큼은 전문연희자들의 우수한 기량이 없이는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없음이 확실하다.

굿거리, 덧배기, 빠른 덧배기, 휘모리 등의 가락에 몸과 마음을 실은 연희자들이 모든 진풀이의 형식과 내용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 4. 풀고

진정한 굿의 의미는 모든 맺힌 것으로부터의 해원(解願)에 있다. 비단 형식적인 가락이나 진풀이에 있어서 해원이 아니라 놀이판에 참여하는 모든 이의 갈등과 아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삶의 해원을 바라는 것이 굿이다. 연희판의 진풀이에서 풀지 못한 연희자는 개인놀이에서 풀고 놀이판에 직접 끼지 못해 헛된 신명으로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한 관객은 뒤풀이에서 해원한다.

## 에필로그(epilogue)

별이 되어버린 그들은 창천(蒼天)으로 향하고...

이전의 삶은 그 시대에 맞는 삶이었고 현재의 삶은 이 시대에 맞는 삶이겠다. 과거를 즐겨 회상할 필요도 없거니와 미래의 삶을 불안해 할 필요도 없다.

논다는 것에 격식이 무엇이며 못 사람의 시선은 무슨 상관이라. 회색빛 도시의 삶이 풍물을 반겨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전통연희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므로...